

본격 여름 휴가철...지역 대형마트 할인경쟁 '후끈'

보양 먹거리·제철 과일 '다채' 이마트, '이색 초복 대전' 마련 롯데마트, '제철 한상 기획전' 정부, 식품·유통업계 할인 지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 대형마트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폭염과 고물가로 이종고를 겪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제철 과일부터 보양식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앞세운 할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5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광주·전남 지역 6개 점포(광주·광산·봉선·순천·목포·여수점)를 비롯한 전국 매장에서 '이색 초복 대전'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불도장·전가복·산라탕 등 고급 중화 보양요리를 새롭게 선보이며, 이는 기존 중식당 가격의 20% 수준으로 맛과 가격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선호텔 중식당 출신 셰프가 참여해 전통 맛을 살리면서도 전자레인지 조리법을 개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삼계탕·장어·전복 등 전통 보양식도 할인 판매 중이다. 특히 간편식 삼계탕은 17일부터 28일까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6%가량 할인된 3980원에 선보인다.

대표 행사 품목인 '국내산 무항생제 두마리 영계'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행사카드 결제 시 3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육계 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획과 물량 확보를 통해 가능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도 파격 할인된다. 17일 단 하루, '파머스픽 씨가 적어 먹기 편한 수박'을 9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앱 '바이어's 매거진'에서는 16일까지 할인 쿠폰과 2+1 증정 행사도 진행 중이다. 산지 직송 서비스 '오더투홈' 이용 시 행사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돼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11일부터 2025년산 여름 햇사과 '썸머킹'을 선보이고 있다. '썸머킹'은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국산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을 자랑한다.

7월 중순부터는 광주·전남 지역 점포(광주수원·월드컵·첨단·나주·남악·여수·여천점)를 포함,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해 신선한 햇사과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16일까지 '제철 한상 기획전'을 열어 국내 유명 산지에서 직송한 복숭아와 참외, 미국산 체리, 경산 자두 등 다양한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찹쌀수수도 2990원에 준비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입맛을 돋운다.

보양 먹거리 할인도 풍성하다. 삼계탕용 영계가 25년 최저가인 2490원에 한정 판매되며, 닭다리를 2개에서 4개로 늘린 닭볶음탕, 강화섬계탕 등도 할인 중이다. 전복, 문어 해물탕 등 해산물도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는 CA저장기술을 활용해 여

름철에도 신선한 영해 시금치와 스마트팜 재배 상추, 갯잎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며, 무더위 속 신선한 채소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점포(광주하남·동광주·광양·목포·순천·순천풍덕점)를 포함한 전국 매장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16일까지 '홈플러스 히트상품 위크'를 통해 생연어, 치킨 등 여름 인기 먹거리와 우유, 간편식, 김치, 두부 등 식료품을 최대 반값 수준에 선보인다. AI 기반 수요 예측을 활용한 '물가안정 프로젝트'도 병행돼 과일, 마늘, 소시지 등 주요 품목에 1+1 혜택과 파격 할인이 적용된다.

이어 17일부터 30일까지는 마트·온라인·익스프레스·몰 등 전 채널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NOW' 썸머 슈퍼세일이 펼쳐진다. 삼겹살, 한우, 복숭아, 통닭 등 신선식품과 여름 이불·의류·물놀이 용품 등 약 2만8000여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며, 카테고리별 1+1, 반값 특가,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최근 여름철을 겨냥해 '심플러스' 스낵 7종과 유기농 레몬수도 새롭게 출시했다. 삼계탕 맛, 불비빔냉면 맛 등 독특한 여름철 인기 음식 맛을 담은 스낵은 7종 모두 10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한다. 유기농 레몬수 역시 500ml 대용량에 1000원으로 출시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장바구니 물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협력해 7~8월 두 달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공식품 등 체감 물가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비롯해 농협 하나로마트·GS리테일 등도 자체 행사와 연계 할인전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국 130개 전통시장은 다음 달 4~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의 30%,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이른 무더위에 여름 과일 수박 가격 '고공행진'

수박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이 최근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3만원 넘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따르면 전날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3만327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유통업계에선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이 2만9543원으로 3만원에 육박했으나 이미 3만원 넘는 가격에 파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9816원으로 3만원을 눈앞에 뒀다. 직전 집계일인 지난 11일 대비 700원이나 올랐으며 지난 4일(2만3763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000원 이상 상승했다.

이는 1년 전(2만1336원)보다는 약 8500원(39.8%) 올랐고, 평년보다는 41.8% 비싸다.

유통업계는 무더운 날씨가 생육에 영향을 미쳐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박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수박 출하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상승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바캉스 필수템 '여름 샌들' 선봬

인기 바캉스 슈즈 특가전 진행

(주)광주신세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여름 '운샌들(운동화 같은 샌들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 '라움 에디션' 매장에서는 미국 어반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킨(KEEN)'의 대표 모델 '뉴포트 H 2'를 만나볼 수 있다.

물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 관리가 쉽고, 입체 성형된 인솔로 안정감 있는 착화감을 제공한다. 끈을 간편하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스토퍼 구조도 실용적이다.

플레이스팟에 위치한 '힐라' 매장의 '페이트 샌들 V2'도 운샌들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고프코어와 귀여운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플루언서의 착용 사진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제품을 찾



광주신세계 본관 3층 라움에디션 매장에서 직원들이 운동화 같은 샌들로 유명한 'KEEN'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폭신한 미드솔과 탄력 있는 아웃솔로 첫 착용부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17

일까지 '바캉스 슈즈 특집전'이 열린다. 어그, 탠디, 톰캐논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해 슬리퍼부터 샌들까지 다양한 여름 슈즈를 이월 특가에 선보인다. 윤준명 기자

 @jnilbo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